

지역 매 아리

김제소방서,기도폐쇄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숙지 당부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기도 속 이물로 인한 응급환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하임리히법'으로 알려진 초기 응급처치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 3년간 통계를 보면 2016년 2063건, 2017년 2342건, 2018년 2914건이다. 한해 평균 10% 이상씩 증가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대부분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 기침을 하게 해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숨을 쉬지 못하고 기침이나 말도 못하는 '완전 기도폐쇄' 환자는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먼저 환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권 손을 감싼 후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기도 이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고,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윤병헌 서장은 "기도폐쇄는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위급한 상황인 만큼 평소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폐소생술과 함께 시민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평선 축제장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현영삼)는 지난 4일 제21회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페이스 페인팅'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교 밖으로 꿈을 찾아온'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으며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앓고 있는 친구들에게 센터에 대해 홍보하고 선입견·편견 등 여전히 싸늘한 사회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구성된 봉사 동아리인 '꿈드림 페이스페인팅'은 센터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역축제장에서 센터 홍보 및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영삼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및 사회적 함양 등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세계 속의 지평선 축제 성황리

김제시, 전통 농경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 구성도 높아  
청년농장과 청년 푸드트럭 등 지역의 발전과 연계 호평

오감만족 체험왕국,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Over the horizon~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농경문화의 중심지 벽골제에서 펼쳐진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5개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무장하여 관광객을 맞이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김제지평선축제는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확충하고 개·폐막식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볼거리 위주의 행사진행으로 관광객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큰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 전통농경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김제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벽골제 전설 생동놀이', '종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쌍룡 햇불 퍼레이드'에 대동성을 가미하여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모라모라!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도롱이 워터터널', '대동 연날리기', '황금들녘 달구지 여행' 등의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도약과 함께 준비한 아시안데이, 러시아데이는 그동안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평선축제를 찾아온 국내 관광객에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의 면모를 드러냈다.

체험과 더불어 볼거리 연출에서도 큰 성과를 드러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고의 공군, 블랙이글스 에 어쇼가 지평선 가을 하늘을 수놓아

장관을 연출하였으며 벽골제를 밝히는 달빛 미러볼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평선의 밤을 선물하였고 벽골제 소원한지 등 희망 LED공선 날리기와 같은 야간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지평선 청년농장과 청년 푸드트럭 등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장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는 측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김제 시민과 축제장을 방문해 재밌게 즐기고 간 관광객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며 함께한 21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평선축제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축제에 동참해 준 김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제9회 완주군수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봉동읍 맥파이스 야구장서 11월 3일까지 개최

전국의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완주에 모였다.

6일 완주군에서 생활체육 야구인들의 가을 대전 '제9회 완주군수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가 봉동 맥파이스 야구장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한달 여 간 진행되는 이 대회는 전국 야구동호인 32개 팀이 출전한다.

전국 생활체육야구동호인, 직장, 공무원 단일팀 등 순수 아마추어 4부팀으로 구성돼 경기가 진행된다.

토요일 16개팀, 일요일 16개팀이 토너먼트 경기방식으로 진행하며 토요일, 일요일 1위 팀 간 시상은 우승, 준우승으로 트로피와 완주 으뜸상품권이 지급된다.

완주군수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는 2010년 첫 개최 후 전국 야구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올해로 9번째를 맞고 있다. 개최식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완주군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불심양변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부상자 없이 본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동호인들 간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의 시구와 시타에 참여해 참석한 관중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봉동읍 울소리 일원에 완주 야구장 건립을 진행 중



완주군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100여 명과 신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W푸드아카데미 조직화교육을 진행한다.

## 완주군, W푸드아카데미 조직화교육 실시

10일 중앙도서관 3층 강당서

완주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W푸드아카데미 조직화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100여 명과 신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완주군 중앙도서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경제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성공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동력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직화 교육은 오는 10일 사회적 경제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등 이론 교육을 진행하며, 11일과 18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2회 진행한다.

정재운 먹거리정책과장은 "많은 이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본 교육과 전문 심화 교육의 중간 단계 교육인 조직화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단계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현대·기아차, '수해 차량 특별지원' 실시

'태풍 미탁' 피해 고객 수리비 할인, 렌터카 사용료 등 지원

현대·기아차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는 현대·기아차가 수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해 피해 차량 정비 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전국 지역 서비스센터나 블루

랜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줌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 또한 무상으로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300만 원 한도 내 지원)

이에 더해 현대자동차는 수해를 입은 수해 차량을 입고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기아차는 고객이 수해 차량을 폐차 후 기아자동차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최장 5일 동안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법인/영업용/화물 차량 제외)

뿐만 아니라,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을 투입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님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와 긴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빠른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현대자동차 ☎080-600-6000 / 기아자동차 ☎800-200-20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의회 '정책연구회' 활동 시작

완주군의회는 개원 이래 최초 의원 연구단체인 '정책연구회'를 10명 의원(대표의원 정중운)으로 구성, 지난 6월 4일 연구단체 등록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연구회는 완주군의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대처하고 군민

을 위한 민생 조례 입법부터 중장기 정책 개발에 이르기까지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지난 2일과 6일에는 완주군 행정의 실태와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와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위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될 제2차 정례회 앞두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양성빈 전 도의원, 정창수 교수)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기법 ▲결산 이해와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등 후일도 반납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